

SBS 구성원의 힘! 서명운동 700명 돌파!

‘대주주의 대대적 재투자 실현을 위한 범 SBS 서명운동’이 7일 만에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사흘 만에 500명을 돌파하는 뜨거운 열기에 노동조합 사무처도 놀랐습니다. S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물론, 보직자를 비롯한 비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명운동 중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노동조합의 방향이 옳다”, “끝까지 지지할 테니 열심히 달려 달라”, “구성원 스스로 재투자 의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에게 직접 서명을 독려하시는 분들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든 SBS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월, ‘SBS 수익구조 정상화

서명운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SBS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미디어홀딩스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구조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4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유출된 수익이 SBS의 제작비와 경쟁력을 위해 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 서명운동의 끝은 2.20 합의였습니다. SBS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실익이 없다며 한사코 반대하던 사측도 현재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유통-제작 기능의 선순환이 회복되면서 SBS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경영 수치 개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타 지상파의 적자 구조 속에서도 SBS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구성원과 노동조합의 노력과 투쟁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서명운동은 당시와 거울상입니다. SBS의 주인이 TY홀딩스로 바뀌는 것, 달리 말하면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TY홀딩스 체제는 이런 노력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씨앗을 품

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 사전 승인 조건으로 “SBS의 재무 건강성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고 내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장은 ‘공정한 거래 구조’라는 방어선(防禦線)을 넘어, ‘재투자’라는 전진선(前進線)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절실함을 오는 20일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구성원들의 간절함을 가능한 많이 담아내 대주주도 설득하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설득해 보겠습니다. 내 직장 SBS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주춧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30년,
우리 다시 꿈꾸시다!

대주주의 대규모 재투자 실현을 위한



대주주의 대규모 재투자 실현을 위한 범 SBS 서명운동

일시 : ~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장소 : 목동 SBS 방송센터 1층 로비

새로운 30년... 우리 다시 꿈꾸자! 퍼간 만큼 재투자! 찾아드립니다 퍼간 만큼 채워요!

TY홀딩스 + SBS미디어홀딩스 = 회복불능의 SBS 자산 빼가기

지난 2018년과 2019년 초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SBS와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지주회사 체제가 사실은 대주주인 태영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SBS 방송 수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소유경영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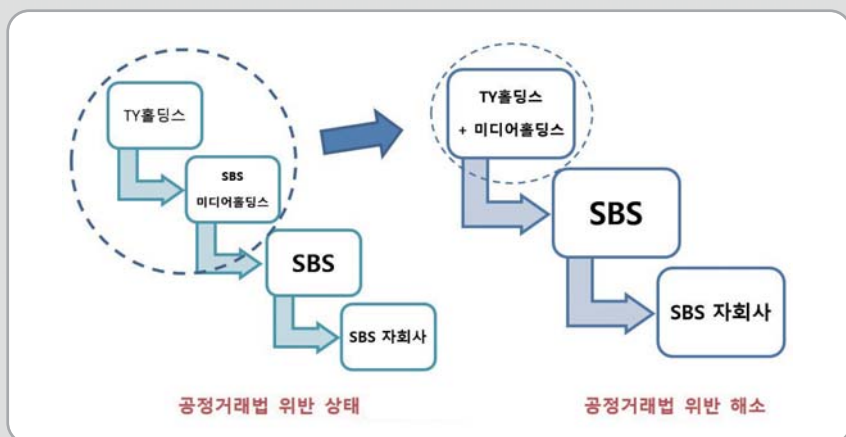
2019년 윤석민 회장 “소유경영 분리 위해 SBS +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안돼”

그러나, 당시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과 사측은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방송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통위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이 때문에 2019년의 수익구조 정상화 노력은 SBS가 회사채를 809억원이나 발행해 콘텐츠허브 지분을 돈 주고 사오고, 미디어넷 계열의 2개 P.P를 유상으로 인수해 수직 계열화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일부 구조는 바뀌었으나, 이익 터널링을 통해 빼돌린 SBS 수익은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으며, SBS미디어홀딩스 안에는 여전히 SBS로 귀속돼야 할 자산과 기능이 남아 있다.

그런데 TY홀딩스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주주가 180도 말을 바꿨다. 소유경영 분리를 위해 방송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던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다.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SBS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지분 규제 위반이 발생하자, 이를 풀기 위해 SBS미디어홀딩스 체제를 해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 TY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 흡수 합병 시



2020년 윤석민 회장 측 “TY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흡수 합병 추진”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TY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SBS를 직접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단계를 줄여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 측은 방통위에도 같은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이 SBS를 직접 지배하며 방송을 취약파락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완전한 과거회귀이다.

이러한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추진은 결국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체제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말상일 뿐 아니라, SBS로 귀속돼야 할 방송 자산을 대주주가 영구히 탈취하겠다는 수순일 뿐이다.

SBS미디어홀딩스, 2008년 SBS 자산 1,227억원 분할해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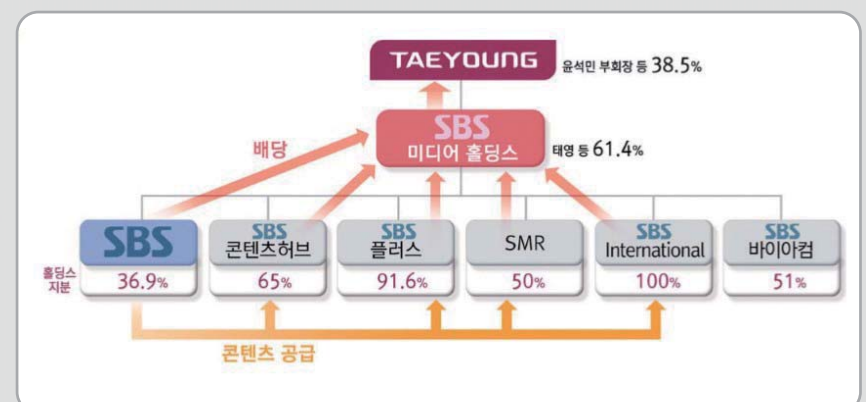
SBS미디어홀딩스는 태영그룹이 별도로 투자해 만든 회사가 아니다. 2008년 설립 당시, SBS의 자산을 7대 3으로 분할해 1,227억원의 SBS 자본을 뽑아내 만든 회사다. 이 자본을 기반으로 SBS와의 각종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후 약 4천억원대에 육박하는 수익이 추가로 유출됐다. 현재 SBS미디어홀딩스의 별도 자산규모는 약 5천억원대에 육박한다.

표2> SBS 자산을 뽑아내 설립한 SBS미디어홀딩스

(2008년 SBS 재무재표)

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제19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17기
	제18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
	제17기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보통주자본금	91,262,910,000	130,375,585,000	130,375,585,000
자본잉여금	57,918,953,081	78,927,600,250	78,927,600,250
주식발행초과금	49,023,633,624	70,033,761,936	70,033,761,936
기타자본잉여금	8,895,319,457	8,893,838,314	8,893,838,314
자본조정	(122,774,429,381)		
감사차손	(122,774,429,38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34,384,868	11,216,348,477
지분법자본변동		5,308,248,469	5,163,770,848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284,369,609)	(2,022,271,22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510,506,008	8,074,848,851
이익잉여금(결손금)	422,065,284,548	433,910,919,717	401,858,734,027
법정적립금	33,850,000,000	31,890,000,000	16,590,000,000
임의적립금	380,472,304,997	347,772,304,997	330,252,304,997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 결손금)	7,742,979,551	54,248,614,720	55,016,429,030
자본총계	448,472,718,248	649,748,489,835	622,378,267,754
부채와자본총계	555,047,672,120	776,187,619,874	771,564,101,109

표3> SBS미디어홀딩스 체제 하 SBS 방송수익 유출 구조와 규모



SBS-홀딩스 계열사간 콘텐츠 거래/로열티 수익

연도	총매출	배분대상 매출	로열티수익 (B)	수익배분율	수정수익 배분율 적용 (A)	수정수익 - 기존수익 (A-B)
2008	1,346	1,121	424	38%	874	450
2009	1,762	1,160	461	40%	905	444
2010	2,890	1,448	617	43%	1,129	512
2011	3,617	1,669	740	44%	1,302	562
2012	3,941	1,786	860	48%	1,393	533
2013	4,020	1,848	973	53%	1,441	468
2014	4,096	1,874	1,103	59%	1,462	359
2015	2,573	2,181	1,466	67%	1,701	235
2016	2,615	2,288	1,626	71%	1,785	159
2017	2,320	2,016	1,506	75%	1,572	66
합계	29,180	17,391	9,776		13,564	3,788억원

*수정 수익 배분율은 2018년 현재 사측이 적용 중인 로열티율 78%대입

재투자엔 '침묵', 사원 대표는 '저지'

SBS의 지난 30년은 SBS 방송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역사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그래서 창사 30주년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SBS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창사 기념식은 사측과 대주주가 SBS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사측은 창사 30주년 공식 행사에 SBS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초청하지 않고 배제시키려 했다. 노동조합이 하루 전 공문을 통해 참석을 통보하고 종사자 대표에 대한 예우를 요구하자, 사장 뒤통수를 바라보는 자리를 '최대한의 예우'라며 마지못해 배치했다. 종사자 대표가 이런 취급을 당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1,100여 SBS 조합원을 대표해 윤창현 본부장이 대표이사, 창업주와 동일선상에 앉으려 하자, 이동희 경영본부장은 윤 본부장을 붙잡고 육탄방어하고 나섰다. 이 장면은 지난 16일 오전 사내에 공지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나, 무엇이 찢렸는지 사측은 이 영상을 곧 삭제했다.

이동희 본부장 등 경영진이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 곱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SBS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인이 아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행태는 SBS 전체 구성원에 대한 무례와 폭력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대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러니 방통위가 부가한 '성실협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될 리가 있겠는가. 경영진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일 기념식을 통해 노동조합은 SBS 구성원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재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사장으로부터, 창업주로부터 '과감한 재투자'의 비전과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오랜만에 SBS를 찾은 윤세영 명예회장은 '더욱 빨리 페달을 밟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독려했으나, 가속 페달 밟을 에너지를 재충전할 '재투자'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페달을 밟고 구를 힘이 빠지고 있는 SBS 구성원들은 '더 노~오력'하라는 공허한 메시지에 깊은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행사 이후 윤창현 본부장은 윤세영 명예회장에게 "노동조합에서 차 한 잔 모시고 싶다"고 대화를 요청했으나, 윤 명예회장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거부했다. 이어, "윤석민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명예회장께서 잘 줌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웃음만 짓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어떻게든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과 대화를 성사시켜 보려던 시도는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다.

박정훈 사장도 기념사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그토록 강조했던 '혁신'을 반복적으로 거론했으나, 혁신의 구체적 비전과 방향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마부작침의 자세로 일하자"며 SBS 구성원들의 분발을 훈계했을 뿐이다. 화려한 말의 성찬 속에 정작 필요한 '재투자'는 없었고, SBS 구성원들을 철저히 '머슴'으로 다루려는 태도가 30년을 맞은 우리 일터의 생일 잔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SBS미디어홀딩스 체제를 해체한다면 그 자산과 기능을 SBS로 환원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그것은 원래 SBS의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겠다는 것은 2008년 소유 경영 분리하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떼어간 SBS 자산, 그리고 이후 이익 터널링으로 빼돌린 자산을 방송지주회사도 아닌 태영그룹의 본진 TY홀딩스로 영구히 이전해 SBS는 사실상 자산과 기능을 원상회복할 기회와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SBS 방송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방송 자산을 SBS미디어홀딩스로 일단 뽑아내고, 다시 미디어 홀딩스를 TY홀딩스로 흡수하게 되면 대주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거액의 SBS 자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노동조합이 SBS에 대한 대주주의 대규모 재투자를 요구하며 윤석민 회장을 직접 만나야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민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TY홀딩스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해 SBS로 귀속돼야 마땅한 거액의 자산을 집어 삼키겠다는 그에 상응한 대규모 재투자 방안을 즉시 SBS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향후 TY홀딩스에 의한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은 어떠한 합리적 명분도 얻을 수 없으며, SBS 구성원들과 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에 의해 결국 무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규모 재투자를 통해 SBS에 유출 자산을 환원하기 전에는 TY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 합병은 꿈도 꾸지 마시라.



이동희 경영본부장이 윤창현 본부장의 착석을 방해하는 모습

기념식이 끝난 직후, 13층 대강당 밖에서 윤창현 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윤세영 명예회장(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영방송 대주주의 현주소를 말하다

14일 전국언론노조 '언론노동자 결의대회'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 노동자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앞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언론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주주의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 독립 쟁취!'를 핵심 구호로 내건 이번 집회에서는 언론노조 각 언론사 기본부가 모여 한 목소리로 대주주의 전횡을 비판했다. 결의대회 장소가 태영빌딩 앞인 것 역시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사를 폐업하겠다는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있는 OBS 대주주의 사례, 재허가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 방송사업을 반납하고 폐업을 선언한 경기방송 대주주의 사례, 고(故) 이재학 PD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CJB 청주방송 대주주의 사례 등 다양한 증언이 나왔다. 이들 대주주들은 언론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취급할 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나아가 언론 노동자의 미래에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SBS 역시 같은 비판이 나왔다. 언론노조는 결의문에서 "태영건설과 윤석민 회장은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본부장은 "TY홀딩스 체제는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SBS 구성원에게 그 리스크를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간 수익을 가져간 만큼, 대대적 재투자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모든 언론 노동자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16일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올해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방송독립시민행동이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허가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재허가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의 의견 진술을 주장한 것은 민영방송 대주주들의 전횡과 관련이 있다.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돼 왔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주주 한 마디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사장, 대주주의 손바닥 안에서 구성되는 경영진이 작성한 계획서와 의견은 노동조합 등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방송을 황폐화시키는 자본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책무는 자신의 지위와 세습에 골몰하는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며 "대주주 방패 역할을 하는 심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SBS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수차례 파기되어온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 분리, SBS의 미래가치 훼손 없는 자회사 개편안 등 경영계획 마련, 이에 대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는 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유경 간사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 심유리 간사입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즐겨보는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식년을 맞은 이태명 조합원(아트1팀·사진 왼쪽)과 김정호 조합원(영상1팀)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는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